

■ 민선 5기 단제장에 듣는다

김일태 영암군수

“서남권 문화관광 허브 구축”

김일태 영암군수는 민선 5기에 “7만 군민과 함께 중단 없는 전진으로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을 표방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지역발전의 이룩해 내겠다는 각오이다.



유지력 ‘영암 아리랑’ 공연 사업과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월출산을 중심으로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민 중심의 교육과 복지시책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스포츠 타운을 조성, 서남권의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김 군수는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면 시행해 나가고, 무주택 저소득층의 희망인 ‘달뜨는 집’ 건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대불산단은 영암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민선 4기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기업유치를 통해 이제 중공업 산단으로 면모를 갖추었고, 오는 10월 22일부터 시작되는 F1대회와 연계해 영암을 서남권의 경제와 물류의 허브 중심지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한 가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절경은 바로 좋은 벗과 함께 가는 것이다”면서 “아무리 좋은 시책도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호응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군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했다.

김 군수는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월출산 기슭에 자리 잡은 ‘기(氣)찬랜드’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여름 피서지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 여세를 몰아 산수(山水)하는 물류센터 유치해 현재 4~5단계에 달하는 유통경로를 1~2단계로 줄여 농업을 생산에서 유통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4차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관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는 “농업은 영암의 기간산업으로 군민의 39%가 종사하는 만큼 790억여원(27.3%)을 투입해 친환경·고소득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서남권을 대표

농업, 브랜드 육성·유통 경로 줄여 고소득 창출

“F1대회 성공 경제 살리고 물류중심지 탈바꿈”

김 군수는 ▲농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업소득창출 ▲영암을 서남권의 문화관광 허브구축 ▲활기찬 지역개발 박차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의 경쟁력제고 등 군민과 함께하는 5대 약속을 통해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을 만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김 군수는 “농업은 영암의 기간산업으로 군민의 39%가 종사하는 만큼 790억여원(27.3%)을 투입해 친환경·고소득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서남권을 대표

하는 물류센터 유치해 현재 4~5단계에 달하는 유통경로를 1~2단계로 줄여 농업을 생산에서 유통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4차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관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는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월출산 기슭에 자리 잡은 ‘기(氣)찬랜드’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여름 피서지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 여세를 몰아 산수(山水)



뱀장어 치어 방류

강진군 대구면 주민들이 최근 대구천에 12cm 크기의 뱀장어 치어 2만5000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2005년부터 탐진강 등에 뱀장어를 방류해 어족자원조성과 어민 소득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강진군 제공)

나주시 민선 3·4기 예산만 날린 사업들

13억 들인 ‘생명의 문’ 무용지물 74억 ‘배 테마파크’는 입지 논란

민선 5기 출범후 타당성 여부 논란 증폭

나주시가 민선 3·4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일부 사업이 민선 5기 출범 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받고 있어 행정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

12일 나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민선 3·4기에 추진됐던 일부 사업이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6년 나주대교 초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조형물 ‘생명의 문’이 거론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06년 사업비 13억여원을 들여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국도 1호선의 나주대교 초입 중앙 분리대에 높이 13.5m·길이 17.3m·폭 8m 크기의 조형물을 제작해 설치했다. 하지만 해당 조형물의 경우 설치 당

시부터 나주를 상징하는 조형물로는 부적합하고 설치 장소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최근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해당 조형물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는 등 당시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신중함 검토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나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다.

시민 H씨(47·나주시 금천면)는 “나주시 행정이 불과 4년을 지나지 않아 문제점이 노출된 경우이다”며 “조형물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마저 안고 있는 만큼 철거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업비 74억여원을 들여 현재 나주시 왕곡면에 현재 새롭게 신축중인 ‘나주배 테마파크’도 위치선정이

적절하지 않은 등 민선 4기 잘못된 정책결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공정을 50%를 보이고 있는 ‘나주배 테마파크’는 당시 부지선정 과정에 접근성이 뒤떨어지고 부지가 협소해 체험시설 등의 공간배치가 여의치 않아 자칫 완공후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 해당 부지를 시장 측근이 사전 정보를 취득해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설’이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등 뱀장어 일일 행사로 나주시는 현재 부지로 결정,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행정 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실추된 경우로 지적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 “행정 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실추된 경우로 지적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점과 홍염 등 태양활동, 주 관측실에서는 반달모양으로 보이는 금성을 관측할 수 있다. 어두운 밤에는 아광 별자리 관을 만들어서 실제 밤하늘의 별자리와 맞춰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행사내용은 홈페이지 (star.jangheu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61-860-0651)/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낮엔 물로켓 쏘고

밤엔 별자리 관측

정남진 천문관 체험행사

정남진 천문관 체험행사는 오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여름밤 별빛 속으로’라는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낮에는 체험활동으로 물로켓 쏘기를 해 상공을 비상하고 별자리 관을 직접 만들어 스스로 별자리를 익힐 수 있다.

또 보조 관측실에서는 태양 흑

점과 홍염 등 태양활동, 주 관측실에서는 반달모양으로 보이는 금성을 관측할 수 있다. 어두운 밤에는 아광 별자리 관을 만들어서 실제 밤하늘의 별자리와 맞춰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행사내용은 홈페이지 (star.jangheu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61-860-0651)/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점과 홍염 등 태양활동, 주 관측실에서는 반달모양으로 보이는 금성을 관측할 수 있다. 어두운 밤에는 아광 별자리 관을 만들어서 실제 밤하늘의 별자리와 맞춰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행사내용은 홈페이지 (star.jangheu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61-860-0651)/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영암군 물놀이 테마파크

기(氣)찬랜드 15일 개장

영암군 월출산 자락에 자리 잡은 물놀이 테마파크인 ‘기(氣)찬랜드’ (사진)가 15일 문을 연다.

지난 2008년 7월 조성된 ‘기찬랜드’는 월출산 천황봉에서 발원하는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수를 이용한 5개의 자연형 풀과 월출산의 기를 체험할 수 있는 월출산 웰빙 ‘기찬랜드’ 산림욕장·기 건강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50만명의 인파가 다녀갈 정도로 여름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다.

‘기찬랜드’ 주변에는 하춘화 노래비와 가야금 동상, ‘가야금 산조 창시

자’ 악성 김창조 선생이 가야금을 연주하고 산조를 창작했다는 ‘계급바위’와 높이 40m·폭 5m의 웅장한 석조물이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믿음 공인중개사
T. 971-4911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 첨단지구
상가 임대 : 60m 대로변 2,3층 450평(분할가능)
■ 공장 : 허남공단, 평동공단, 첨단공단 매매, 임대
■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 첨단지구 : 상업지역토지, 모델부지, 상가건물 모델, 무인텔, 매도(다수보유)
■ 첨단지구 : 상가임대, 음식점, 음악홀, 레스토랑(다수보유), 1층병화기; (옷매장 약 60평 임대)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회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특별분양할인 프리미엄 적용)
<총 1096세대>
분양률 95%이상
입주률 760세대 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구, 33평) 로얄층 / 164㎡(구, 49평) 로얄층
191㎡(구, 58평) 로얄층 다수 보유
142㎡(구, 43평) 로얄층 / 로얄층
▶ 112동 1002호 ▶ 113동 1004호
▶ 112동 1102호 ▶ 113동 1204호
▶ 112동 1201호 ▶ 113동 1404호
▶ 112동 1202호 ▶ 114동 1101호
▶ 112동 1302호 ▶ 114동 1301호
▶ 112동 1402호 ▶ 114동 1401호
▶ 123동 402호
☐ 주변 쇼핑타운 / 교통요충지 / 재개발 예정지토써
투자처치 상승 기대
입주민들의 찬사를 받고있는 대단지 명품아파트임.
상담문의 062) 368-0789
H.P 010-2587-8552

효성공인중개사
011-602-4207
☎ 521-6024 (FAX)521-6026
학원 매매
서구최고요지 (현성업종)
요리,제과,제빵 (국비지원)
3층학원·실용수 100평
광주최고시설
매매가 보증금 5천만 포함
총 3억원 (절충가능)
7월 23일
이내만 매매가능
공장 매매
평동공단내 2번도로점
• 대지 3305㎡ (1050평)
• 건물 1983㎡
• 공장총고높이 : 6m~8m
• 호이스트 없음 (설치가능)
• 전기 : 300kw
• 매매가 : 13억원
전자조립, 물류창고
기타제조업 적합

금산공인중개사
T.681-5888 H.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희가능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매주 평일 06:00~08:00~18:00)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단지
※ 10층 신축건물옆 코너

인생열쇠
☎ 062-383-8982
■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노력을 다 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시는 분
■ 이유없이 삶에 장애가 생기고 병고로 시달리시는 분
■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꼭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정술원, 역술원 아님.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 한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